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_진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7.03~2017.06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랑가라대학은 다운타운에서는 조금멀리 떨어져 30분정도 걸리고, 주거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이 학교주변에 있으므로 통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작은 편이지만, 도서관, 학생식당, 컴퓨터실 등 여러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해 볼 수 있습니다.</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수업내용은 레벨마다 차이가 있지만, 레벨3에서는 학문적인 것보다 캐나다 중에서도 밴쿠버와 연관되는 축제, 음식, 유명인사 등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레벨4부터는 점점 아카데믹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글쓰기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참여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발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수업마다 다르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수업 내내 즐거웠습니다. 과제는 보통 2~3시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한 세션 당 두 번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처음에 학교에 가게 되면 레벨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반이 결정됩니다. 테스트는 총 4가지로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을 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랑가라대학의 전반적인 소개, 보험, 홈스테이에 관한 설명을 해줍니다. 랑가라에 교환학생 사무실인 IE Office가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사무실로</p>

	가면 됩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ports는 매달 카약, 볼링, 암벽등반 등으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체로 가기 때문에 더 싼 가격은 물론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3,4,5월까지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일주일에 하루 해 뜨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밴쿠버에우산이 싸지 않기 때문에 우산을 꼭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치안이 굉장히 좋고,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밤 늦게 돌아다녀도 크게 무섭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숙소	<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 홈스테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홈스테이에는 4인가족과 한 명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생활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세탁기 돌리기, 방 청소하기 등 공동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열쇠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도어락 쓰는 습관 때문에 문을 잠구고 나오지 않은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항상 밖을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올 때 한번 씩 더 확인했습니다.
식사	<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 홈스테이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사는 홈스테이에서 먹었습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었고 배고프면 올라가서 직접 챙겨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빵, 시리얼, 우유를 먹었고 점심에는 샌드위치나 전날의leftover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가족이 캐나디언이어서 밥보다는 감자와 옥수수를 주로 먹었습니다. 밴쿠버에 다양한 인종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시집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스시를 많이 먹었습니다.
교통	<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

	<p>교통편이 잘되어있는 편이지만 지하철은 배차간격이 3분에 한 대있는 반면에 버스는 보통 10분 길게는 30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통학방법은 집 근처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총 40분이 걸렸습니다. 오전 수업인 경우에는 출근시간이랑 겹쳐 버스에 사람이 꽉 차면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0만원	에어캐나다(왕복)
Fees		
보험료	130,000원	삼성생명 유학생 보험
숙소	$(800 \times 3) + (26 \times 18) = \$ 2868$	한 달 홈스테이 비용 : \$ 800 하루 : \$ 26
식비	30만원	홈스테이에서 밥을 다 챙겨먹으면 식비가 들지 않지만, 저는 밖에서 많이 사먹는 편이었습니다.
교통비	\$ 91	홈스테이가 1zone에 위치했고, 매달 1zone monthly pass를 구매하여 이용했습니다.
책값	\$ 10	수업하면서 얇은 책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책은 한 권에 \$ 10정도 하며,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치만 많은 학생들이 똑 같은 책을 빌리므로 빨리 가야합니다.
핸드폰비	\$ 56	네이버 카페에 휴대폰 공구를 이용하였으며 통신사는 fido였습니다. 가입할 때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원래 데이터 1GB인데

		같은 가격으로 데이터 4GB, 통화 문자 무제한이었습니다
YMCA	\$ 55	랑가라 대학 옆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 50달러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배드민턴, 농구, 수영 등 여러가지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켓과 공은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매달 \$ 50이며, 맨 처음 등록비가 \$ 50로 첫 달에는 총 \$ 100가 듭니다. 그치만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더 싼 가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바뀌지만 저는 한달무료 프로모션이었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비행기표 왕복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아니면 입국거부 당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 구매하면 날짜를 무료로 바꿀 수 있으므로 조금 비싸지만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편도보다 왕복티켓이 훨씬 더 쌉니다.

필기구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습니다. 형광펜 4가지색, 샤프심, 3hole 종이를 끼울 수 있는 바인더, 3hole 공책,종이가 학교 들어가면 필요한 준비물인데 이미 도착한 다음에 알아서 다 캐나다에서 구매했습니다. A4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보다 작고 종이에 구멍 3개뚫린 종이를 사용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캐나다 밴쿠버 와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한국에서 항상 고민하며, 바쁜 생활을 보냈던 반면에 밴쿠버에 와서 아무 걱정 하지 않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밴쿠버에 와서 생각보다 작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지루하다고 느꼈지만, 잘 보면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해뜨고 날씨가 좋은날에는 공기도 좋고 하늘도 파랑기 때문에 어딜가나 예뻐습니다.

사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대부분 서양사람일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와보니 리얼

캐네디언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인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일어날 수 가 없었습니다. 랑가라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다같이 언어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유창하지 않았고, 표준 영어발음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해서, 영어실력이 늘까 의아했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듣다보니 적응되서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오히려 다 못하는 입장이어서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업의 대부분이 발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만큼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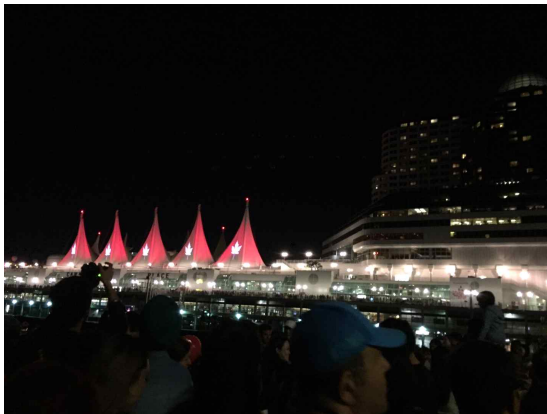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퀸 엘리자베스 공원



그라우스 마운틴



캐나다 플레이스



잉글리쉬 베이



에일타운



로키